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 景 太
印 刷 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產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 央 共 販 場
☎ 967-4984
☎ 965-9551

組織運營의 活性化 시기의 성숙 最大活用

※ 4半世紀의 經倫을 苦難속에서 쌓아온 協會조직 體制는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차게 擴大되었고, 산하 6천余名이 단합하여 生藥分野를 종횡으로 연계 활용해 나간다면 共生共存의 기틀은 더욱 튼튼하게 굳어져 나갈 것이다.

誠實한 會員管理와 지도로

生產品수집과 系統出荷實績을 增大하자

風前燈火와 같았던 世月은 이제 옛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다. 오늘날 協會組織網은 支部 12개소, 分事務所 1백64개소, 共販場 44개소, 任員團 27명, 中央會員 4백여명, 地方會員 약 6천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옛날과 같이 룸의 가 많았던 불실요소도 거의 정비되었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던 의식구조만 시대조류와 함께 개선해 나간다면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탄탄한 기반하에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우선 몇가지 실례만 보더라도 우리 조직체는 남의 별다른 간섭없이 자체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나날이 발전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로는 과거 특생회운영등으로 자칫 협회가 二元化조직으로 혼선을 비져가던 상태에서 과감히 支部會議體로 改編 운용되면서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고 현재는 各支部別로 단합된 체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을 탓하고 도움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도태되고 스스로 개발을 찾는 사람들이 신진대사 되었다는 点이다.

○세째는 항상 자금난으로 상하 분사무소와 會員들의 협조와 지원만을 바라고 있던 本部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상당액의 안정기금을 마련 매해 수개 유망 품종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會員개인에게 直接的인 所得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点이다.

○네째는 行政的 기구 보강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順調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点이다. 이제 협회 자구책의 하나인 부대사업체를 보강할 수 있는 길만 확정된다면 후대에게 비교적 괜찮은 團體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와같이 되는 課程에는 生藥業에 오랜 경륜을 쌓아온 宋會長이하 會長團의 각고한 노력과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두고자 한다.

위에 언급한바 같이 本會는 항상 관계당국의 적극적 배려를 받아 自給自足으로 4반세기 경륜을 쌓아 왔기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발전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변여건은 하루가 달라지고 있지만 本會의 운영과정은 스스로 택한 잠재력을 슬기롭게 키워 나간다면 별하자없이 共生共榮의 기반이 정립되고 영구히 발전되어갈 것이다.

끝으로 이권이 크게 없는 단체이지만 전국 2백30여개소의 조직망과 많은 會員들의 지혜와 창의력을 모아 活用해 나간다면 진정 名實相符한 法人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제공〉

불법유출 한약재 단속강화 및 압수품 당귀 폐기처분 실시

①협회는 외화획득용 한약재 불법시중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시정책을 관계주무부처에 건의 하였던바 지난 본보 173호 3면에 게제한데로 외화획득용 한약재에 대해서는 수입제한품목이라도 그동안 내수용과 달리 수입을 제한 하지 않았으나 8월 2일부터 외화획득용도 내수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 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수입할수 있도록 그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②식품으로 위장 수입 품목의 불법시중 유출 방지대책 건의에 대하여는 계속협조 조정중에 있음.

③불법 반입 압수품 폐기처분 건의에 대하여는 당귀 42톤을 폐기 처분키로 결정됨.

※각급 분사무소장께서는 상기 사실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산하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제공)

連載 韓方순례 〈43〉

〈續〉

④담이 차서 언어가 부자유스러울때

이때는 거담제를 써서 담을 제거할 일이다.

이상의 네가지 경우의 한방적인 처방은 인삼황기탕이나 익기환(益氣丸)을 복용할 일이다.

⑤노(怒)한 음성을 자주 내는 경우 욕설이나 악담을 잘 참지 못하는 것은 담기가 끊긴 증상이다. 이때 손톱을 보면 파래져 있다. 이런 상태는 건강이 약해져서 소리쳐 간장의 보호를 청원하는 상태로 보면 틀림없다.

⑥웃는 음성과 슬픈 음성의 경우 심기가 허하면 슬퍼지며 충실하면 웃게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심장과 관련되어 일어난다.

⑦노래를 부를때 비장의 기가 음성과 만나면 노래로 되어 나온다고 한다. 비장은 음악을 좋아한다.

⑧우는 경우 폐의 기운이 소리와 만나면 울음이 되어 나온다고 한다. 운다는 것은 폐의 본성이라고 한다.

⑨신음을 할때 이는 신장이 소리에 작용할 때 나오는 음성이다. 신음은 곤란한 일이 겹쳐 일어날 때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이다. 신장병환자가 특히 신음소리를 잘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신장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하품이라든가 재채기, 트림, 한숨 등과 같이 언어가 될수 없는 음성도 있었다. 또한 너무 놀라서 복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념의 수양이 되어 있지 못할 때 자주 일어난다

(4)말과 소리로 건강을 지키는 법

중풍으로 언어장해가 왔다든가 부인들이 산전산후에 말을 하지 못한다든가 또한 어린이가 말을 더듬는 등의 특징도 있었다.

지나치게 지껄이면 기침이 나오고 실음증(失音症)에 걸린다든가 식사할 때 너무 떠드는 것은 위를 고통스럽게 하여 등, 허리가 아프다. 누워서 떠드는 것은 몸에 해롭다. 옆으로 누워서 큰소리로 떠들면 기를 손상시킨다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는 주의 상항이지만 이는 모두 신체의 기능에 근거를 둔 경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모두가 내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를 명랑하게 구사하여 심장을 돕고 음성의 억양을 올바르게 씀으로써 폐장을 강화한다는 등은 건강체의 기준인 가벼운 몸을 목표로 하는 가장 정당한 도인법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의 이상은 어느 병증을 결과 현상정도로밖에 생각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한방의 예방의학적인 의학상식의 시급한 보급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언어가 부자유스러워도 이를 통해 내장기상태에 유의하여 한방약을 또는 이에 합당한 식품을 권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건강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틀리면 그 치료법도 틀리기 마련이다.

(祝) 發 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 전라북도지부

지부장 김종근 (중앙이사겸직)
김제군 사무소장 강삼석 (중앙이사및 공판장장겸직)
전주시 〃 정영모
부안군 〃 신용섭 (공판장장겸직)
장수군 〃 정연수
이리시 〃 이상현
남원시 〃 안성홍
순창군 〃 정삼모
완주군 〃 강이상
김제시 〃 최병만 (공판장장겸직)
남원군 〃 황의권
무주군 〃 심한섭
임실군 〃 위풍관
진안군 〃 이경선 (공판장장겸직)
정읍군 〃 정길량
군산시 〃 송성섭
익산군 〃 강병길 (공판장장겸직)
전라북도공판장장 이승엽
정주시 〃 유재균
이리시 〃 이보철
임실군 〃 심재석
순창군 〃 박석면
무주군 〃 김동윤
전주시 〃 양봉식

1993년 9월 20일